



# 집약화되는 日本 LPG업계

**일본의** LPG(액화석유가스)업계가 집약화되고 있다.

최근 日本 通産省資源에너지廳은 LPG元賣 26개社를 오는 9월에 5~6개 그룹으로 집약하는 「共販會社구상」을 마련, 업계에 제시했다. 현재 日本 LPG업계는 1천여억 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있어 체질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LPG업계의 재편성계획에 따라 昭和셀石油와 共同石油은 LPG부문에서 전면제휴하기로 했으며, 또 日本石油가스와 三菱液化瓦斯도 동일그룹의 형성에 합의했다. 이와 같이 LPG업계의 집약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석유업계의 재편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本정부가 LPG업계의 집약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元賣회사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산유국에 대한 가격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약화내용을 보면 ① 오는 9월 1일을 기해 참가회사의 세어에 따라 출자하고 인원을 파견하여 공판회사를 설립하고, 소비자자격과 판매수량,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② 공판회사에 대한 납입가격을 일원화하고 세어를 고정하며, ③ 그룹외의 元賣회사와의 바터거래를 제한하고, ④ 수입교섭, 유조선 配船, 기지를 공동이용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제1단계의 昭和셀石油와 共同石油의 제휴는 금년 초에 共同石油측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昭和셀계열의 정유회사인 東亞石油은 日本鑛業, 아시아石油과 공동으로 共同石油을 설립했으며, 또 茨城県 麗島LPG수입기지는 현재 昭和셀, 共同石油가 공동이용하는등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昭和셀·共同石油그룹에는 伊藤忠燃料가 共同石油의 대특약점인 관계로 伊藤忠商사가 들어 있으며, 共同石油 그룹의 정유회사인 日本鑛業과 伊藤忠商사가 주주인 日本液化가스가 참가하고 있다. 이밖의 그룹에서는 日本石油와 三菱石油가 업무제휴관계에 있기 때문에 日石그룹인 日本石油가스, 興亞石油瓦斯九州石油의 3社와 三菱液化瓦斯가 통합하기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 □

日本 LPG 元賣업계의 집약화방안

	참 가 회 사	세어(%)
제 1 그룹	日本石油가스, 三菱液化瓦斯, 興亞石油瓦斯, 九州石油, 巖谷石油, 丸紅에너지	26.4
제 2 그룹	昭和셀石油, 伊藤忠石油, 日鑛液化가스, 共同石油	17.9
제 3 그룹	出光光産, 全國農業協同組合連合會	16.0
제 4 그룹	三井液化가스, 三井物産, 모빌石油, 키크나스液化瓦斯	12.8
제 5 그룹	코스모石油가스	10.7
제 6 그룹	옛소石油, 제비털石油, 住友化學工業	9.0